

# HI FX Brief

## 모처럼 풍성해진 원화 강세 재료

FX Brief

[경제] 박상현 2122-9196 shpark@imfnsec.com

### 주간 동향: 미국-이란 종전 MOU(양해각서) 합의

- 미국 5월 소비자물가 안도감과 미국-이란간 종전 MOU 합의에 따른 유가 급락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는 전주대비 하락함
- ECB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유로화는 이란 리스크 완화에 따른 유가 하락 등의 여파로 강세 전환됨
- 엔화는 약보합세를 보임. 이란 리스크 해소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개최될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앞둔 경계감으로 약세를 보임. 또한, 달러-엔 환율이 160엔에 재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시장개입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도 환율 경계감을 높임
- 위안화 가치는 강세를 보임. 미국-이란간 종전 협상 기대감이 위안화 강세 재료로 작용함
- 전주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던 호주달러는 약세 기조를 유지했지만 약세폭은 제한적 수준에 그침. 유가 하락 등 이란 불확실성 완화가 호주달러 추가 하락을 제한함
- 달러-원 환율은 한주만에 큰 폭 하락함. 정부의 강력한 시장개입, 국민연금의 환헤지 물량 그리고 이란 리스크 해소에 따른 유가 급락이 맞물리면서 달러-원 환율이 1,510원대로 급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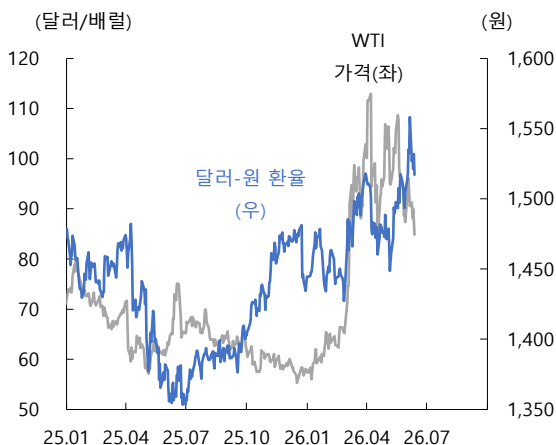
	6월 12일 증가	전주 대비 (%)	전년말 대비 (%)
달러화 지수	99.7	-0.32	1.45
유로-달러	1.157	0.40	-1.52
달러-엔	160.2	-0.03	2.25
역외 달러-위안	6.76	-0.40	-3.04
호주달러-달러	0.70	-0.01	5.60
달러-원	1,518.3	-2.61	5.10

달러-원 환율 증가는 익일 2시 기준

### 금주: 모처럼 풍성해진 원화 강세 재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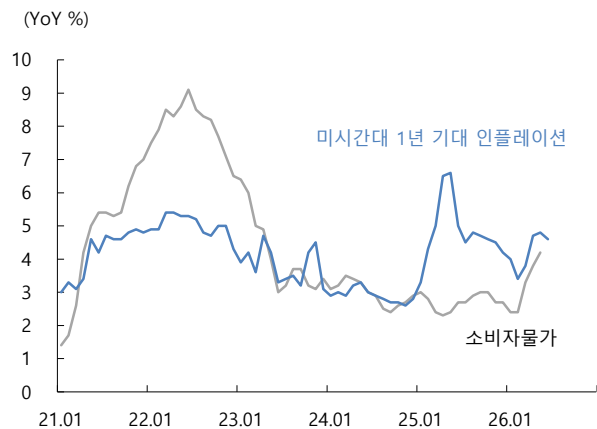
- 금주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와 미 연준의 FOMC회의 결과가 외환시장 변동성을 높일 수 있지만 미국-이란 종전 MOU 합의에 따른 유가 급락으로 이들 통화정책 재료가 달러화에 미칠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. 특히 6월 FOMC 회의에서 강한 매파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유가 급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향후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크게 힘을 얻지 못할 것임
- 6월 FOMC 회의는 부담스러운 이벤트지만 유가 급락과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세 약화 등이 원화 강세 재료로 작용할 것임. 금주 달러-원 환율 밴드는 1,490~1,530원으로 예상함

그림1. 유가 급락이 원화 강세 압력을 높일 전망이다



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2. 6월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5월 대비 하락



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

### Compliance notice

---

-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-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  -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